

가정예배 · 구역예배

충현의 만나

9

2010

가정예배 나훔 · 하박국 · 스바나 · 학개 · 스카랴

마태복음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가정예배 · 구역예배

9

충현의 만나

2010

가정예배 나홀 · 허박국 · 스바냐 · 학개 · 스가랴
마테복음

구역예배
남성구역예배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와 구역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교제입니다

9

2010
September

주 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1 나훔 2장
5 하박국 3장	6 스바나 1장	7 스바나 2장	8 스바나 3장
12 스가랴 2장	13 스가랴 3장	14 스가랴 4장	15 스가랴 5장
19 스가랴 9장	20 스가랴 10장	21 스가랴 11장	22 스가랴 12장
26 마태복음 21장	27 마태복음 22장	28 마태복음 23장	29 마태복음 24장

October

10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Memo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2 나훔 3장

3 하박국 1장

4 하박국 2장

교회 주요일정

9월 5일

제6차 성찬식
교회설립 기념주일
(가족연합예배)

9 학개 1장

10 학개 2장

11 스가랴 1장

나의 주요일정

16 스가랴 6장

17 스가랴 7장

18 스가랴 8장

23 스가랴 13장

24 스가랴 14장

25 마태복음 20장

30 마태복음 25장

- 1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살전 4:13~18)하며 매순간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소서.
- 2 교회에 등록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 3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 4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 5 25개 교구와 20개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 6 1년 1인 1명(1·1·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 7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8 총현의 재단들(유지·동산·복지)이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시고,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양로원, 함양총현농원)과 공사 중인 사랑관(총현기도원) 및 준공된 자연장(납골시설)이 이웃 사랑의 열매(롬 15:2)가 되게 하소서.
- 9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복음의 열매

무 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은

길 가나 바위 틈, 가시떨기에 떨어져 많은 결실을 맺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고전 3:6~7).
구원이란 계속해서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영적인 열매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와 많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축복에 대해 감사하면서
무엇보다 놀라운 말씀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
찬양하며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갈 5:22~23).

2010년 9월을 맞이하여 위임목사 김성관



● ● 가정예배 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 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사회자
기도	다 같이
주기도문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가 정 예 배

매일성경묵상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디모데후서 3:15)



장차 있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니느웨가 타국의 침략으로 철저하게 노락질당하고 멸망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마지막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나타내 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위세를 당당하게 떨치던 니느웨가 그들이 자랑하던 젊은 용사들까지도 모두 적들에 의해 살해되고, 다시는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가 될 것임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누구도 멸망을 피할 수 없음을 니느웨를 통해 보여 주고자 했습니다(8~13절).

사람은 살아 가면서 늘 죄를 짓습니다. 평생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죄를 짓지 않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철저하게 회개하며 다시는 같은 죄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과거 심판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온 3장). 그러나 이제 그 기회마저 놓쳐 버린 니느웨는 결국 심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는 용서하시지만, 결코 회개하지 않고 다시 죄악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평소의 삶 속에서 자신을 부인하며 죄에 빠지지 않도록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굽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나 2:2)

기도제목

① 철저히 회개함으로 죄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같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소서. ②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살전 4:13~18)하며 매순간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나훔은 니느웨(앗수르의 수도)의 죄악을 폭로하며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돌이킬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앗수르의 죄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살육과 궤홀과 강포로 대변되는 그들의 포악성이며(1절), 또 하나는 마술, 음행으로 대변되는 그들의 간교함입니다(4절). 나훔은 이러한 죄악을 범한 니느웨의 멸망이 필연적인 사실임을 선포합니다(8~19절). 먼저 니느웨가 아무리 부유하고 강성하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노아몬(애굽 수도)의 멸망 사건을 실례로 들어 선포하고(8~11절), 이어 떨어지기 쉬운 무화과 열매와 메뚜기의 비유를 통해 니느웨가 필연적으로 멸망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12~19절).

세상 사람들은 남들보다 많은 돈을 소유하거나 권력을 가지는 인생의 자랑에서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래서 부자나 권력자들은 스스로 우월감에 사로잡혀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물질이나 권세가 끝없이 갈 것이라 여기고, 그것이 자신에게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야말로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은 유한한 것이며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헛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돈이나 권력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며, 그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에 네 치마를 걷어 올려 … 네 부끄러운 곳을 못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나 3:5)

기도제목

① 곧 사라질 헛된 것을 사랑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 그리고 그의 절대 주권적이고도 전능하신 이 분명히 존재함에도 의인이 압제를 당하거나 악인이 번성함에 대해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토록 타락하여 온갖 불의를 행하고, 오히려 의인이 악인에게 핍박받고, 불의한 자가 공의한 자보다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현실에 대해 하나님께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가 생각하는 공의의 하나님과는 도저히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1~4절). 이에 대해 하나님은 자신이 결코 악을 묵과하는 자가 아니라 죄를 심판하는 분이시며, 선지자의 항의 이전에 이미 패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 심판의 도구로 갈대아를 준비해 두셨다고 응답하십니다(5~11절).

세상을 살다 보면 선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보다 악한 사람이 경제적으로 더 성공하고, 남을 속이고 타인을 짓밟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살아 계시서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죄악을 간과 하심이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심판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합 1:5)

기도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① 악한 세대에 발 맞춰 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하박국은 유다가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었으나 왜 하필이면 심판의 도구가 바벨론이나 하는 것에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박국이 제기한 질문에 자신의 뜻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심으로 그의 의로움을 드러내십니다. 그리하여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되고, 온 천하는 그의 앞에서 잠잠하게 되며, 의인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서 바벨론 역시 죄로 인해 심판받게 되는데 그 가운데 유다도 심판당하나 의인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자 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크게 주님의 두 번째 대답을 담고 있는 전반부(1~5절)와 다섯가지 재앙(6~20절)을 보여 주는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의인은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악에 대해 승리할 수 없으며, 죄에 대해서 자유를 누릴 수 없습니다. 악인의 강포가 아무리 강력하고 드세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들 위에 군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에게 심판을 행하시며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에 대해서, 악인들의 핍박에 대해서 인내하고 끝까지 견디 자들에게는 주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을 보여 주시며 나아가 이 세상에 대해 영원하신 주님의 통치권을 보여 주실 것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합 2:3)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총을 베푸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믿음의 반석, 주님의 교회

교회설립 57주년 기념주일

은총! 충현교회의 발자취를 뒤돌아볼 때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아니고서는 지금의 충현교회는 없었을 것입니다(엡 1:22).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된 교회는 '충현'이라는 이름보다는 믿음의 반석에 기초한 '주님의 교회'라는 사실에 더욱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골 1:24). 충현교회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마 16:18)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복음의 불모지를 향한 힘찬 전진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의 실천을 기대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요 일 5:5).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시기에 승리하는 우리의 것입니다!



뛰어난 운율을 갖추고 있는 일종의 시로서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모든 의문이 다 풀린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 하나님의 성품(1~3절), 하나님의 능력(4~7절), 하나님의 목적(8~16절), 그리고 믿음의 축복(17~19절)에 대한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주요 핵심부입니다. 무엇보다 의인이 악인에게 핍박과 고난을 받는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참 믿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삶과 길임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기도함으로써 참된 믿음에 이르는 길을 지도하며 신앙으로 말미암는 참된 기쁨을 밝히 보여 줍니다.

세상에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이나 핍박을 가할 수 있는 물질들, 그리고 육체적인 힘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결코 이런 세상적인 것들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주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있다가도 사라지고, 물질은 언젠가는 없어지며, 육체적인 힘도 세월이 지나면 쇠약해지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만물이 없어지더라도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의 능력만을 의지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인도하심과 십자가가 담긴 것을 깨달으며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합 3:17~18)

기도제목

① 세상에 부합한 자가 아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설립 57주년 기념주일과 제6차 성찬식이 십자가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스바냐 선지자는 각종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박한 '여호와와 날'을 선포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심판의 보편성에 대해 보여 주고 있는 이 장은 심판이 온 지면에서부터 시작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 전반부(1~6절)와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의 양상을 언급하고 있는 중반부(7~13절), 그리고 임박한 여호와와 날을 기록하고 있는 후반부(14~18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와 날'은 두려운 파괴의 날로서 견고한 성읍을 송두리째 파괴합니다. 따라서 여호와와 날은 여호와와 큰 날이요 무서운 날입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구원과 축복의 날이요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는 날로서의 여호와와 날과 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주일이면 교회에 가고 열심히 봉사하며 헌금 드리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의 구원은 결코 우리의 노력이나 외적 조건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선지자는 오히려 여호와와 날에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처럼, 형식적인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인 것이 아닌지를 돌이켜 보며 주님 앞에 진실로 바로 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여호와와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와 날의 소리보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습 1:14)

기도제목

① 십자가의 은총을 의지하여 미련함을 버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유다에 대한 혹독한 심판의 심각성을 알린 1장에 이어 이스라엘 민족을 일찍부터 대적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스스로 교만하여진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전반부(1~3절)와 이방 민족들에 대해 심판을 선언하는 후반부(4~15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 모압과 암몬, 구스와 앗수르 등입니다. 스바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전망을 세계적으로 확대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높이고 있습니다.

성도들 중에 교회에서는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주님께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서 세상에 나오면 또다시 과거의 삶과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자신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실 때 그 사람의 말만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진실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따라서 자신의 회개에 걸맞는 행동이 없는 기도는 오히려 주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한 마디의 기도보다 삶 속에서 자신의 죄악을 뉘우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참 평강을 내려 주십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습 2:11)

기도제목

① 나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게 하소서. ②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에서의 회복과 그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욕받는 자로 하여금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며 그들의 원수를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날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선지자는 기다림의 시간 동안 낙심하거나 쓰러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16~17절). 주님은 세상의 원수들을 만나게 되더라도 이기라고 하십니다(창 15:1, 수 10:25, 왕상 17:13). 그리고 세상과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과 그 적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가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요 14:6). 구원을 위한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됩니다. 또한 악한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께만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습 3:17)

기도제목

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삶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중심의 하루가 되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학개 1장 · 찬송가 542장

9

목요일

이스라엘 백성이 학개 선지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명을 의지하여 임마누엘의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13절). 이 메시지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한 것입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차이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증거하느냐 자신의 뜻대로 증거하느냐인데, 학개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증거하는 선지자였음을 본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개 선지자가 전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증거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는 유다 지파의 진정한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겠다는 이 말씀은 곧 임마누엘의 축복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인간들 중에 거하셨습니다(마 1:23). 성육신 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커다란 축복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임마누엘의 축복의 역사 속에 거하게 됩니다. 지금은 이 약속이 세상적 어려움으로 인해 잘 드러나지 않지만,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는 임마누엘이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그 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학 1:13)

기도제목

- ① 임마누엘의 주님을 믿고 주님 가신 그 길을 견게 하소서.
- ②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양로원 · 함양충현농원)과 공사 중인 사랑관(충현기도원) 및 준공된 자연장(납골시설)이 이웃 사랑의 열매를 152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여 성전의 초라함에 실망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하시며,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9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나타나는 영광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크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보인 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요 1:14).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사건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함이요 그리스도의 의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함이었습니다(딤펴전 3:16).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이 성전에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평강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평강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구원의 결과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하나님과 진정한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 간에 사랑과 평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요 14:27).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에 진정으로 맛보게 됩니다. 이 땅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분쟁과 미움이 있는 곳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곳에, 생명의 길을 찾는 자들에게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 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학 2:9)

기도제목

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믿고 그 사실을 전하게 하소서. ② 당회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중심으로 주님의 교회(마 16:18)를 세우는 데 하나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스가라는 학개, 말라기와 함께 포로 후기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귀환한 후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바른 신앙을 회복케 하는 일에 주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전 재건이 초반부터 순조롭지는 않았습니 다. 사마리아를 비롯한 주변 국가의 거듭된 방해로 성전 건축이 지연되자, 백성들은 실의에 빠져 성전 건축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였습니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이 자주 방해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일에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이라고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스가라는 그 같은 백성들의 나태를 책망하며 다시금 성전 건축에 매진하도록 격려하였습니다.

본문 7절부터 6장까지는 8개의 환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장에 나타난 두 환상은 성전 재건 후의 영광과 열방에 대한 심판을 의미합니다. 특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처지리라”(16절)는 내용의 환상은 성전 재건 후의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뿔과 대장장이 네 명에 대한 환상은 예루살렘을 해쳤던 네 뿔을 대장장들이 와서 두렵게 하고, 예루살렘을 흠뜨린 열방을 치며 심판하게 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은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모셔 들이고, 주님과 함께 살 때에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며 주님의 참된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불쌍히 여기므로 …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처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속 1:16)

기도제목

① 우리의 참된 구주 예수님을 모셔 들이고, 주님과 함께 살며 주님의 참된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경험하게 하소서. ②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살전 4:13-18)하며 매순간 회개하고 자기를 부안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주님 저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어 교회에 다녔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며 지금까지 큰 어려움 없이 순탄한 삶을 살아왔다. 물론 영적인 것뿐 아니라 세상적인 것을 포함하여 많은 기도제목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은 간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아주 빨리 응답해 주셨다. '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실까?' 하고 생각해 보았다.

나는 교회에서 시키는 일은 될 수 있는 대로 순종하였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복음도 잘 아는 것 같았고, 열심히 말씀 생각하며 회개도 하였다. '그래! 이 정도면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하지. 이러니 주님이 나의 삶을 평탄케 하셨구나.' 라는 어리석은 자만심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다.

겉으로는 늘 겸손하며 나보다도 남을 높이고 더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지내려던 내 모습에서 조금씩 이상 징후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상대방의 잘못에 대하여 이전 같으면 쉽게 참고 넘겼을 일도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고 오랫동안 살아있어 잠도 못 자고 힘들어 했다. 미워하는 마음을 회개하며 주님께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덮게 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그때뿐이었다. 남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이렇게 힘들게, 또 오랫동안 나를 잡아매는 이유를 몰랐다. 그러던 중 미국에서 20년 만에 오빠가 귀국하여 온 가족이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사무엘하 9장 말씀 가운데 "그 아비 요나단으로 인해 다윗왕 앞에서 식사를 하며 왕자 대접을 받지만 여전히 두 발을 저는 므비보셋"이란 내용이 있다. 전에도 몇 차례 읽었지만 그냥 지나쳤던 내용이었었는데 바로 나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구원받았음에도 여

전히 죄를 짓는 어쩔수 없는 죄인인 나. 남을 정죄하며 아프게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용서치 못해 괴로워하는 죄인 된 내 모습을 보게 하셨다. 이후로 주님은 말씀 가운데 조용히 세미한 음성으로 나를 건드리기 시작하셨고 거기에 나는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날마다 때마다 그저 죄인임을 고백하는 기도로 반응했다. 이제까지 지식적으로 알았던 복음이 마음 속에서 확실히 깨달아진 것이다.

위임목사님이 부임하시던 해에 마침 우리 가족도 일본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였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대한 설교를 들었을 때 지금까지 복음에 대한 설교를 접해 보지 못했던 나로서는 다음 주 설교 말씀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주간충현>를 읽곤 했다. 주변에선 말씀이 어렵다고 할 때 그들을 안타까워했던 내가 이제야 진짜 복음을 깨닫다 나... 참 부끄럽고 어이가 없었지만 너무 행복했다.

그렇다. 복음은 내가 참으려 애를 쓰고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없어지는 것이며 내가 죽는 것이다. 사랑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제까지의 부끄러운 나의 삶이 주님의 계획 아래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주님의 목적과 뜻에 따라 나를 인도하시리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

복음을 깨닫고 나니 마음이 얼마나 자유롭고 가벼워지는지. 죄 짓는 일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는 나를 언제나 오늘이나 또 앞으로도 여전히 사랑해 주실 주님으로 인해 감사함과 행복함을 느낀다. "주님! 저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랑으로라도 주님을 사랑하며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이 또한 내 결심과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열심으로 인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김하경(권사, 15교구)

2009년 9월 27일 주간충현



1장 7절부터 시작된 환상 중 세 번째 환상이 이 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환상에 나타난 '척량줄'은 수직 또는 수평을 잡기 위한 건축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이 환상은 예루살렘의 재건과 그로 인한 영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게 되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이 없는 촌락과 같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4절). 그리고 주님께서 친히 예루살렘 사면에서 불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당시 성전 건축이 이방인들의 방해로 지지 부진하고 있었음에 비추어 볼 때, 이 같은 환상은 백성들에게 위로와 커다란 도전을 주기에 충분하였습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재건될 성전에 대한 환상은 종말론적으로 볼 때 주의 강림으로 완성될 새 예루살렘, 즉 하늘 성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신자들 가운데 임하신 현재적이며, 유기적인 성령의 전으로서의 신자들 안에 존재하고 있는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신자들은 장차 우리 가운데 임하실 종말론적인 주님의 교회를 사모해야 합니다. 동시에 믿는 신자들인 우리 자신들이 바로 성령님의 내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자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스 2:5)

기도제목

① 우리가 성령의 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② **출현의 재단물**(유지 · 동산 · 복지)을 복음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네 번째 환상으로서 여호수아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제1차 포로 귀환 때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부정한 옷이 하나님 앞에서 벗겨지고, 정하고 아름다운 의복으로 단장되는 모습은 여러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네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4절).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이것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의 지도로 성전 건축이 원만히 진행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변하는 인물로 보면, 이스라엘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즉 이 장에 나타나는 환상은 이스라엘이 깨끗하게 되어 제사장 나라로 회복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씩’에 대한 언급을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8~9절). 또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이 땅위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속 3:10)

기도제목

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믿게 하소서. ② 월요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가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순금 등잔대에 대한 환상

스가라 4장 · 찬송가 521장

다섯 번째 환상으로써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상을 본 후에 스가라는 이것의 의미를 천사에게 물었습니다.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 이까”(4절). 그러나 정확한 의미는 끝까지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성전 재건 사업을 수행할 때 모든 장애물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6절).

일반적으로 순금 등잔대는 재건될 성전을, 두 감람나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즉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상징합니다(14절). 천사는 계속해서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지대를 놓았으며 그것을 마칠 것을 말해 줍니다.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9절). 이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나 그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공급하여 주실 때에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인간의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만 가능합니다. 이는 주님을 믿는 모든 신앙인들의 신앙고백이기도 합니다. 모든 일이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됨을 인정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속 4:6)

기도제목

① 모든 것이 내가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알미임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학생들에게 십자가 복음만을 확신있게 전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

스가라 5장 · 찬송가 298장

15

수요일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 환상과 여인에 대한 환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두 '심판'이라는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두루마리 환상은 성전 건축을 태만히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히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스가라 선지자는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았습니다. 천사는 스가라 선지자에게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즉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글대로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3절).

여인의 환상은 죄인에 대한 종말론적 심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특히 여인의 환상에 등장하는 ‘에바’는 곡식 측량에 사용되는 기구인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 에바로 정확하게 가루를 재는 것처럼, 인간의 죄악을 측량하시고 그에 따라 정의롭게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저주와 에바로 표현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은 자들만이 엄위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시다.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속 5:4)

기도제목

① 그 크신 주의 사랑하심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닌 마음으로 깊이 깨닫게 하소서. ② 1년 1인 1명(1·1·1) 전도하며 교회주변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네 병거에 대한 환상

스기라 6장 · 찬송가 251장

여덟 번째 환상으로써 네 병거에 대한 환상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네 마리 말은 이스라엘의 대적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를 상징하는데, 계시록에 나타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계 6:1~8). 환상에 나오는 홍마는 피의 색깔로써 대학살을 나타내며, 흑마는 슬픔과 죽음을, 백마는 승리를, 어룡지고 건장한 말은 더욱 치명적인 심판을 상징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네 병거에 대한 환상 이후에 스기라는 바벨론으로부터 온 대표들에게 은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고 그것을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는 명령을 받습니다(9~11절). 이것은 여호수아에게 왕과 제사장의 직임과 기능을 수여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여호수아는 구속 사역을 완성하실 왕이요, 제사장이신 메시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싸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12~13절). 진정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우리의 중보자요, 구속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 인류의 진정한 구속자와 중보자이시며,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싸이라 이름하는 사람 이 자기 곳에서 돌아나서 여호와와 전을 건축하리라”
(속 6:12)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② 25개 교구와 20개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천국일꾼(골 1:25)이 계속 양성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스가랴 7장 · 찬송가 251장

17

금요일

형식적인 금식에 대하여 강한 어조로 책망하며 참된 금식의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금식이란 원래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한다는 성도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당시 백성들은 인간적인 규례에 얽매어 불필요한 금식을 준수하였습니다. 금식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형식으로 하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형식화된 금식은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 아니라고 비판합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칠십 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5절).

스가랴 선지자는 이렇게 형식화되어버린 금식에 대해 비판하면서 참된 금식에 대해 말해 주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도 모하지 말라 하였으니”(9~10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내용은 사라져 버리고 그 껍질만이 남았습니다. 백성들이 이러한 형식적인 금식을 실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우리의 신앙도 메말라 그 생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 삶의 중심에 모시고, 순종하며,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매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칠십 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속 7:5)

기도제목

① 형식이 아닌 진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소서. ② 피땀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들을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딤후 2:3)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바벨론 포로생활을 마친 후, 예루살렘이 회복되며 복구되어(1~8절) 그 나라가 부요할 것이며, 그들의 명성이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9~15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지키던 슬픔과 탄식의 금식은 그치고, 즐거움의 금식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18~19절).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백성들이 실천해야 할 진실과 화평의 규범을 강조하십니다(16~17절).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될 때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는 말씀이 거듭 반복되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 자신의 열심이며,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이 이를 확실한 일들임을 보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지상명령은 구약 예언의 성취인 동시에 지금도 즐기치게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영혼 사랑입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현의 성도들이 헌신하며 십자가 복음을 들고 가는 일들 역시 바로 이러한 계획의 성취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시고 마침내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혼을 건지는 열심을 허락해달라고 간구하며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약속을 땅 끝까지 전하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속 8:8)

기도제목

①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서 맡겨 주신 지상명령을 감당하게 하소서. ② 십자가의 보혈로 풍성한 신령한 예배(요 4:24)를 위하여 미리 준비(15분 전 예배실 착석)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조상숭배는 안 됩니다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조상숭배 문제로 가족과 친족 간에 갈등이 생기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조상숭배 문제와 결부되어, 믿는 자가 가족과 친족에게서 핍박을 받기도 했다. 결국 이런 현상은 복음전파에 걸림돌이 되었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 “교회는 다니고 싶지만 제사 때문에 힘들다. 나는 장손이기 때문에 어렵다. 부모가 생존해 계시는 동안에는 교회에 나갈 수 없다.” 등등의 핑계는 단순한 핑계가 아니다. 예나 오늘이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미신을 버리며 조상에 대한 제사를 버리고 나서야 가능하다. 예수님은 믿을 수 있지만 조상에 대한 불효자가 될 수 없다는 생각이 보통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실천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관례·혼례·상례·제례’의 관혼상제 의식은 우리의 전통적인 민속의식으로 소중히 지켜왔고, 이것이 없이는 올바른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다. 우리 나라의 제사의식은 두 가지가 결합해서 이루어진 무속적인 형태이다. 곧 민속신앙과 유교의 조상숭배 사상이 결합해서 생긴 것으로, 조상에 대한 제사풍속으로 발전되었다. 전문가들은 조선시대에 우리 민족이 조상을 숭배해서 제사했다는 풍습을 전하는 기록이 없다고 말한다. 고대로부터 우리 민족은 무속신앙에 근거하여 인간의 영혼은 불멸한다고 믿어 왔다. 이 신앙이 제사의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뿌리가 된다. 시체를 매장할 때 여러 가지 격식을 갖추려는 것 또한 죽은 영혼이 그 시체에 있거나 배회하고 있으며 결국에는 다시 돌아온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민속신앙과 조상숭배 사상이 결합하여 죽은 조상의 혼이 다시 찾아와 차려 놓은 제물을 먹는다는 신앙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

미 죽은 조상의 혼이 배회하기도 하고 또 어떤 지정된 안식소에 가 있지만 때때로 자손들을 찾아오며, 특히 죽은 장소와 그가 살던 곳에 찾아오고 그 혼들이 끊임없이 자손들의 제사와 공양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이처럼 극진한 공양을 받는 조상의 혼은 그 자손을 축복한다고 믿는 것이다. 민속신앙이 발전하고 또 세속화된 것은 죽은 조상의 혼의 가호를 받고자 하는 자기중심적 욕망이 우선되고, 심지어는 자손들의 액운과 재해를 막아주고 큰 복을 내려 준다는 기복 사상과 맞닿아 있기도 하다. 그래서 살아 있는 늙은 부모는 자손을 돕지 못하고, 죽은 부모의 혼백이 자손에게 복을 준다는 엉뚱한 말이 나오게 되어 살아 계신 부모에게는 등한히 하고 죽은 후에 극진한 제사를 드리는 앞뒤가 바뀐 불효한 제사의식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죽은 혼은 구중천을 헤매고 다니며, 그 혼은 죽은 날에 주로 옛 집에 찾아와서 제사음식을 먹는다고 생각하였다. 후손이 그 주린 혼을 달래고 먹이고 섬기는 행위를 제사라는 형식을 통하여 행하면 그 혼은 후손들을 보호하여 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일종의 죽은 자에 대한 공포의식이 담겨 있다.

성경은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누구도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구약성경은 죽음과 죽은 자를 부정하게 보고 무력하게 묘사하고 있고(레 7:24, 22:8), 죽은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에 정결의식을 행하도록 하였고, 기억할 때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도록 엄하게 명령하고 있다(민 19:11, 18-20). 이와 같은 죽은 자에게 강력하게 부정성을 부여한 의도는 죽은 자 숭배를 배척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배척 사상은 백성으로 하여금 죽음이나 죽은 자에 대한 어떤 형태의 섬김 행위나 죽음을 미화시키려는 숭배적 요소가 들어올 것에 대비한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죽은 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우상숭배 행위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막 12:27).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고 사복음서에서 강조한 것으로 보아 죽음을 부정적으로 보았으며, 살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강조함을 알 수 있다. 조상에 대한 인식을 숭배의 대상으로 나타낸 것이 아님을 우리는 명심해야 한다.



장차 구원을 베푸실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9절).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은 직접 인간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시는 겸손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자리에까지 내려오시는 것만도 말할 수 없는 겸손이요 낮아지심인데, 예수님께서서는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시어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메시아의 탄생과 삶, 그리고 죽으심 모두는 하나님의 겸비하심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는 폭력이나 전쟁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평화는 예수께서 스스로 낮아지시는 희생을 통해 얻게 된 평화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자들의 평화 역시 겸손히 나를 낮추고 희생할 때 찾아옵니다. 즉 가장 비천한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을 뿐만 아니라 나귀를 타고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의 겸손이 우리의 삶에 적용될 때, 신자들의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외적인 화려함과 세상적인 풍요로움이 부족할 지라도, 영적인 만족과 평화를 얻는 참된 비결은 자신을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의 겸손의 은총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 복음 전하는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눅 9:9)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하심을 닮아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② 모든 위원회가 보혈의 은총으로 충만하여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에게 바벨론에서의 포로생활은 그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민족적 자만심은 이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들에게 남아 있는 것은 패허가 된 옛 성전과 민족적 상처 그리고 불안한 미래뿐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셨고, 그 회복의 중심은 메시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나오는 모퉁잇돌은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원래 모퉁잇돌은 건물의 중심축이며, 건물의 이 부분과 저 부분을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약 교회의 모퉁잇돌이 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기초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속죄의 사역이 완성된 후에 그를 따르던 제자들은 결국 신약 교회의 설립이 이루어지는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교회는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설립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확장되어 가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따라서 교회의 모퉁잇돌 되신 예수께서 세우신 교회는, 하늘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신자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지키고 수고해야 할 신앙의 터전입니다. 때문에 모든 성도는 이러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역과 복음선포를 세상 끝 날까지 지키고 확산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속 10:6)

기도제목

① 교회의 건물과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고전 15:3-4)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선한 목자되신 그리스도

스가랴 11장 · 찬송가 569장

21

화요일

그리스도를 거절한 유대인들의 죄와 그 죄 때문에 그들에게 격렬하게 내려질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문은 “너는 잡혀 죽을 양 떼를 먹이라”(4절), “내가 잡혀 죽을 양 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7절)라고 기록합니다. 이처럼 본문은 메시아되신 예수께서 오셔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가련한 양들을 먹이시고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돌보지 않는 불쌍한 양들을 돌보시는 선한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가랴는 그 양들이 결국 선한 목자를 배반하고 은 30에 목자를 팔아버린다고 예언합니다. 이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져 이스라엘은 참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자는 하나님께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는 그 분의 생애도, 죽음과 부활도 거부하는 자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를 거부한 채, 신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를 좇는 자들에게 나타날 때, 유대 민족이 흠어진 것처럼 모든 불의한 자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잔치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충현의 성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 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슥 11:7)

기도제목

① 선한 목자되신 우리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뒤를 따르게 하소서. ② 오랜 전통에 따른 우상숭배의 죄를 무심코 범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영원한 하늘의 소망

스가랴 12장 · 찬송가 438장

열국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침공하지만, 하나님께서 유다의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힘을 주어 이기게 하신다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망치려는 원수들의 노력은 자신들의 파멸을 초래할 뿐, 교회에 아무런 피해를 가할 수 없습니다(1~4절).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에 속한 비천한 자와 연약한 자들에게 힘을 주시고 보호하시며 구원을 행하실 것입니다(7~8절). 스가랴는 이러한 모든 자비에 대한 서약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도와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9~14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임이요”(눅 6:21)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신자가 현재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억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성도에게는 고난이요 슬픔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의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고난의 시간으로 보고 회피할 것이 아니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의 웃음을 주실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어진 소명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합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성도의 특권은, 이처럼 애통의 눈물을 통해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십시오.

“그 날에 여호와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슥 12:8)

기도제목

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② 나 외에 다른 산을 네게 두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추석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하면서, 신약시대와 관련된 약속과 예언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죄에 대한 경멸과 용서에 대한 약속들이 나옵니다(1~6절). 그리고 유다가 멸망할 것과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성결케 하신다는 약속이 뒤따릅니다(7~9절). 그러나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분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 고난 받는 종으로서의 메시아입니다. 힘없는 순한 양처럼 인간의 모든 죄고와 고통을 홀로 감당하시고,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에서 피와 물과 진액을 흘리신 그리스도의 고난은 예루살렘을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그를 따르던 수많은 자들이 흠어졌으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의 백성의 영적 회복을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결코 힘없이 몰락한 종교지도자의 최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서의 이해할 수 없는 영적 싸움의 승리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이제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에 속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소망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영광은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보장이요 은혜의 선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늘날 십자가를 달게 지고 그분의 뒤를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슥 13:9)

기도제목

① 나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② 추석 명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여호와가 오시는 날’, 즉 그의 심판의 날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와 날에는 심판과 자비가 동시에 행해질 것인데 교회에 대해서는 자비가, 교회의 대적자와 박해자들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내용이 그 전반에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을 치러 온 이방 나라들의 파멸이 있는 후에(1~3절), 그리스도께서 오시며, 그 은혜의 왕국이 설립됩니다(4~11절). 또한 예루살렘에서 이방나라들은 재앙을 당하며(12~15절), 이방 나라 중에서 남은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고(16~19절), 모든 것이 거룩하게 변하는 영광의 세계가 펼쳐집니다(20~21절).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가치관은 왕이신 주님을 위해 설정되어야 합니다. 옛 왕정 국가에서 나라의 주인은 왕이고 그 백성은 왕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따라서 백성에게는 왕을 섬기고 충성을 다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에 속한 우리 신자들 역시 바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영적 왕국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바칠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주님의 사랑과 능력에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을 모두 맡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슥 14:11)

기도제목

① 우리의 유일한 영적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충성을 다하는 기쁨이 있게 하소서. ② 예루살렘 찬양대(눅 2:36)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유월절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 죄악을 대신하여 속죄 양으로서 고난 당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구원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또한 화해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더불어 그의 순종,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완전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처음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며, 그리스도께서는 사역을 행하시는 어느 곳에서나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실 것을 세 번씩이나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이런 예고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고난의 정도를 깨달아야 하며 그 아픔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훨씬 이전부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당해야 할 모든 고통을 받으셨으나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온순하셨습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넘겨 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 삼일에 살아나리라”(마 20:19)

기도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소서. ② 25개 교구와 20개의 교회학교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딤후 1:3)에 전심전력하게 하소서.

뜨거운 기도의 힘

선교지는 공산권으로 포교 활동이 금지된 곳이며, 현재의 상황
이 매우 좋지 않다고 들었다. 내심 염려하는 마음과 '성령께서 우리
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는 기대감 속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였고, 나 또한 공안에게 붙들려 추방당하는 일만은 막아달라
고 간절히 기도드렸다.

사역지에 도착하여 긴장감 속에 첫 사역을 시작했다. 외부 사람
들에게 배타적이라는 그곳 사람들은 우리의 염려와는 달리 별 거부
반응 없이 우리를 맞아 주었다. 개중에는 손을 저으며 자기가 믿는
우상 신을 믿는다고도 했지만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람은 거의 없었
다. 몇 번의 위협에 처하기도 했으나 주님은 순탄히 피하게 해주셨
다. 몸의 질병을 호소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가
물러갈 것을 선포하며 간절히 기도해 주었고, 복음을 끝까지 집중
해서 들던 소녀를 위해서는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면서 많이
울며 기도했다.

선교지는 우상으로 뒤덮인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었다. 어
딜 가나 우상 단지가 차려져 있었다. 생명이 없는 저들 모습에 주님
은 너무 애통해 하며 많은 눈물로 기도하게 하셨다. "미련하고 무지
한 딸에게 선교지를 보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신
주님! 그들 또한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하시며 네 마음에 품으
라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로 하여금 이 귀한 사역을 감당
케 하신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복음이 세계 만방에 퍼지는 그
때까지." 사역을 떠나기 전부터 돌아오는 순간까지 우리와 동행하
시고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영적 권위는 창조주로서의 권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실 뿐 아니라 그를 꾸짖고 귀신의 세력을 제어하며,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을 명하여 쫓아내기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서는 모든 천사를 다스리고 부릴 수 있는 권위가 있습니다.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여 그리스도의 공생애 중에 나타나 수종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공생애 사역 기간 동안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드러날 그리스도의 권위는 심판하는 권위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스스로 자신에 대하여 증거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요 5:22~27)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권위는 인간에 의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원한 권위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이 권위 앞에 모든 입이 닫혀지고 모든 무릎이 꿇어져야 합니다. 만일 이 권위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그는 마지막 심판의 날 그리스도에 의해 그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그 때에는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창조주시오 심판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마 21:27)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주를 경배하게 하소서. ② 위임목사님을 십자가의 복음을(고전 15:3-4)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그리스도인의 예복

마태복음 22장 · 찬송가 259장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11절). 혼인 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혼인 잔치에 맞는 예복을 입는 것이 그를 초청한 사람에 대한 예의입니다. 여기서 예복이란 꼭 화려하고 좋은 옷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정성과 예의를 갖춘 옷이 바로 주인을 기쁘게 하는 예복일 것입니다. 성도들이 마련해야 하는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입는 옷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것을 통하여서도 믿음의 예복을 마련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잘 만들어진 예복이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된 것이 아니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입는 예복은 의의 옷입니다. 이 의의 옷은 단순히 형식적인 신분이나 자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할 믿음의 실천입니다. 의의 예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과 그 믿음이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생활이며, 삶의 양식입니다. 이 의의 옷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입을 예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면 반드시 이 옷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복이 없는 자는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짐을 당하여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13절). 그러므로 오늘도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함으로 의의 옷을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 하거늘”(마 22:12)

기도제목

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의 예복을 준비하게 하소서. ② 복음의 오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해외 단기선교(막 16:15)에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으로 보내는 선교사, 가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아담과 하와는 범죄한 후에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기 보다는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데 급급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죄악은 감추고 자기 의를 드러내려합니다. 주님께서서는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데 자신의 존귀와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자녀들을 모으려 하셨습니다. 그것도 여러 차례에 걸쳐 시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서는 백성들이 주님에게 나 오지 않으면 멸망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가셔서 말씀도 전파하시고 많은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습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산다고 했습니다. 보화를 위해 전 재산을 기꺼이 처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세상에만 치우쳐 세상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생명이 없습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야만 살 수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 15:5).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마 23:37)

기도제목

①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즉각 반응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② 천현의 재단들(유지 · 동산 · 복제)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5절).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거짓말하는 자’이며 ‘예수 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적그리스도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세 가지 신앙고백을 가르칩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받아들이는 것이요, 둘째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며, 셋째는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와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이며, 이와 다른 내용을 가르치는 자가 이단이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동정녀 탄생, 십자가 사건, 부활 신앙 등과 함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마귀는 인간에게 가장 달콤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접근합니다. 지식인에게는 지식인에게 맞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그들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각 개인의 최대의 약점을 이용해 접근합니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하려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요 거짓말쟁이입니다.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서 인간에게 해롭게 행동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평화의 사도로서 활약하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고 맙니다.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십자가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마 24:4)

기도제목

① 진리를 깨달아 거짓된 것들에 미혹되지 않게 하소서. ② 교회에 등록한 새가족들이 길과 진리와 생명(요 14:6)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착하고 충성된 종

마태복음 25장 · 찬송가 595장

30

목요일

주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창조주에게 소속된 종입니다. 또한 주님은 죄인인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의 종입니다. 종은 어디까지나 주인을 위해서 있는 존재로써 자신의 욕심을 좇아서는 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늘 인식하고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인식했다면 이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로 주인의 뜻을 바로 알고 주인의 뜻을 좇아 살아야 합니다.

본문의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에게 각기 다르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성도들에게 똑같은 재능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그렇게 하셨기에 종된 자들에게는 자신들이 달란트를 얼마만큼 가졌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며, 우리가 무슨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사느냐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집사와 권사도 있고 교사도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각기 주님이 맡겨 주신 직분에서 얼마나 충성을 다해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며 우리 각자가 성전의 귀한 돌이 되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마 25:21)

기도제목

① 나를 종으로 인식하고 주인되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② 피택자들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는 십자가의 정병(鎧兵) 2:3이 되게 하소서.

우리 가정의 기도제목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50 EAST LEXINGTON AVENUE
NEW YORK, NY 10017-2453
USA
CANADA: 1-800-387-3822
UK: 01852 853030

구역예배

9월 구역교재 초점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세상은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합니다. 그 능력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신자이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구합니다. 예수님도 사탄의 시험에 말씀으로 대적하셨습니다. 한낱 시골 어부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도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심령에 말씀의 단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보혈의 말씀이 뿌리내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9월 3일

시편 139:7~14

주의 만찬 Lord's Supper

고난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라

9월 10일

마태복음 13:3~9

씨를 뿌릴 때 Sowing The Seed

열매 맺는 삶을 위해 예수님을 의지하라

9월 17일

마태복음 4:1~11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The Temptation of Jes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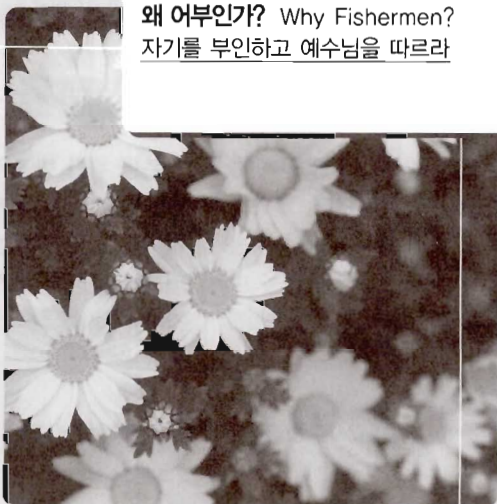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

9월 24일

마가복음 1:16~20

왜 어부인가? Why Fishermen?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 구역예배 순서

찬 송		다같이
기 도		담당자
구역교재		인도자
합심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 구역교재 전개

도입

민 음으로

공부를 위한 첫 단계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0분

전개

말 씬으로

공부를 위한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판에 새기는 길(路)입니다.

소요시간 25분

결론 및 적용

십 자가로

공부를 위한 마지막 단계입니다.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대로 삶 속에서 십자가의 길(路)을 걸어봅니다.

소요시간 15분

2010년 9월 3일

1 과

주의 만찬

| 초점 |

고난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라

| 찬송 |

찬송가 349장 나는 예수 따라가는

찬송가 198장 주 예수 해변서

| 본문 | 시편 139:7~14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⁸⁹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 ¹³³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¹⁴¹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시 139:7~8).

※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은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고백하며 주의 만찬에 나아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쏟고 자신의 몸을 희생시킴으로 우리의 죄를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기거나 혹 여러분이 제 궤도에서 벗어났다고 해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또 무슨 문제를 겪고 있든지 우리를 만나주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로 하여금 고난의 시간에 그 시련들을 어떻게 이겨내도록 하셨는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속이는 자 야곱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타지로 도주했습니다.

※ 야곱이 고향을 떠나 도망해야 했던 이유를 설명해 보십시오.

야곱은 낯선 땅에서 외로운 첫날 밤을 보내며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해야 했습니다. 야곱은 잠을 청하며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를 만나주셨습니다.

창 28:17~18 /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어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이요 이는 하늘의 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인적조차 드문 곳에서도 야곱은 하나님의 집에서 누릴 수 있는 위로를 발견했습니다.

시 139:9~10

하나님의 종 이사야

이사야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사 6:5

아무리 경건한 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부정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깨끗케 하셨습니다. 비록 이사야는 부정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하였고 여전히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사 6:6~8

시 139:11~12 / 내가 혹시 말하기를 ☐☐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니 ☐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습니다.

눅 24:15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 그들은 깊은 절망에 빠져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마을로 돌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을 때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성경에 쓰인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집까지 들어가셔서 함께 식탁에 앉으셨습니다.

눅 24:30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길에 개입하셨고 그들의 눈을 밝혀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올바른 방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 139:13~14 /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_____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모두가 인정하는 거짓말쟁이, 경건한 하나님의 종, 예수님께 헌신했던 제자들, 이들 모두는 각각 다른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이 절망의 시간들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의를 지키십니다.

마 4:19 _____

요 14:18 _____

요일 1:9 _____

이번 주일은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특권을 함께 누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행하여 자신을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고전 11:24~25).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그곳이 어디이든지 예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고난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 믿음의 기도 |

1. 총현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2. 교년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의 가정이 십자가의 은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2010년 9월 10일

씨를 뿌릴 때

| 초점 |

열매 맺는 삶을 위해 예수님을 의지하라

| 찬송 |

찬송가 330장 어둔 밤 쉬 되리니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 본문 | 마태복음 13:3~9

³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⁴뿌릴새 더러는 길 가에 떨어
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 ⁸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
지매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
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⁹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세상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은 길 가나 바위 틈, 가시떨기에 떨어져 많은 결실을 맺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멈추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바닷가에서 자신을 둘러싼 많은 무리들에게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 씨 뿌리는 비유(마 13:18~23)를 정리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복음의 씨앗은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놀라운 씨앗이 뿌려졌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씨앗 때문에 실족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는 네 가지의 다른 반응들을 살펴보겠습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무반응

씨가 뿌려졌을 때 보인 첫 번째 반응은 무반응입니다.

마 13:3~4 _____

마 13:19 / 아무나 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이는 곧 길 가에 뿌려진 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축복의 기회가 주어질 때 마귀는 그것을 빼앗기 위해 필사적으로 대적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죄와 허물 가운데 죽어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의 원칙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불순종의 영이 있기 때문에 마귀가 그들의 말씀의 씨앗을 빼앗아 가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엡 2:2).

감정적인 반응

씨가 뿌려졌을 때 보인 두 번째 반응은 감정적인 반응입니다.

마 13:5~6 _____

마 13:20~21 /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_____ 말미암아 이나 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기쁨으로 말씀의 씨앗을 받으나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최우선으로 삼지 않은 자들은 이 세상이 자신에게 훨씬 더 가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한 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금방 예수님에게서 멀어져 버립니다.

※ 은혜를 받은 후 더 어려운 환경에 처했던 적이 있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세속적인 반응

씨가 뿌려졌을 때 보인 세 번째 반응은 세속적인 반응입니다.

마 13:7

마 13:22 /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에 말씀이 ☐☐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예수님보다 명예와 부를 사랑하는 자들은 결국 말씀의 씨앗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교만한 자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해결책을 더 그럴 듯하게 여깁니다. 그들은 결국 세상의 넓은 길로 가게 됩니다.

열매

씨가 뿌려졌을 때 보인 마지막 반응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마 13:8

마 13:23 /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_____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가 되느니라

※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은 어떠한 땅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밭에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러면 우리를 옥토로 만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어떤 것, 그 누구보다 강력합니다.

사 55:10~11 /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_____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들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구원이란 계속해서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영적인 열매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게 됩니다.

갈 5:22~23

마 13:9

예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열매와 많은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에 대해 감사하며 무엇보다 놀라운 말씀을 허락하신 것에 대해 하나님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열매맺는 삶을 위해서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 믿음의 기도 |

1. 나의 심령이 좋은 땅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2. 매순간 회개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믿음의 길을 걷게 하소서.

2010년 9월 17일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 초점 |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

| 찬송 |

찬송가 343장 시험 받을 때에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 본문 | 마태복음 4:1~11

①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②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 지라 ... ③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 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④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 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 3:17).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 1:12~14 _____

※ 최근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한 일에 대해서 나누어 보십시오.

사탄은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마 4:1). 마귀는 그리스도를 유혹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준비하기 원합니다.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육신의 정욕으로 시험받으셨다

마귀는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 4:3

우리의 육신은 언제나 먹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은 긴 시간 동안 먹지 못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몸은 음식을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이때 마귀는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소원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기 좋은 부분입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시험합니다.

살전 3:5

※ 신명기 8:2~3, 마태복음 4:4 말씀이 가르치는 핵심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열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마 6:11). 마귀는 우리의 욕망을 이용해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덫에 걸려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십시오.

안목의 정욕으로 시험받으셨다

마귀는 '안목의 정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 4:6

만약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전혀 다치지 않았다면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을 지도 모릅니다. 마귀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망을 이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 나에게 있는 안목의 정욕을 돌아보고 나누어 보십시오.

마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성경(시 91:11~12)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목적에 맞지 않은 부분("네 모든 길에서")은 제외시켰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십시오.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의 눈이 계속 천국을 향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신 6:16

이생의 자랑으로 시험받으셨다

마귀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이생의 자랑' 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마 4:9

사탄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이렇듯 마귀는 가장 쉬운 길을 제시하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 이생의 자랑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또한 이생의 자랑과 관련해서 받은 시험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의 왕에게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를 물리치고 있습니까?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맞추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 4:10

신 6:13

마 16:23

마귀의 시험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맞서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며 내 삶의 원동력인 것을 고백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자신을 부인한다면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승리할 것입니다.

약 1:2 _____

시 23:4 _____

요일 2:15~17 _____

매일의 삶은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말씀을 붙들게 되고, 더욱 놀라운 은혜의 삶이 가능케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말씀입니다.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 믿음의 기도 |

1. 매순간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소서.
2.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대적하게 하소서.
3. 구역원들이 추석 때 범죄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소서.

2010년 9월 24일

왜 어부인가?

| 초점 |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라

| 찬송 |

찬송가 495장 익은 곡식 거둘 자가

찬송가 500장 물 위에 생명줄 던지어라

| 본문 | 마가복음 1:16~20

¹⁶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¹⁷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¹⁸곧 그물을 버려 두고 따르니라 ¹⁹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깎는데 ²⁰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 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하나님은 인류를 죄의 저주 가운데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당시 죽음은 이 땅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었고 그 누구도 영생에 대한 실낱같은 희망이나 기회조차 가질 수 없었습니다. 죄 문제에 관한 한 어떤 해답이나 해결책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너무도 중대했습니다.

※ 예수님의 사역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십시오.

마 1:21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제자로 삼아 자신을 돕도록 선택하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가장 부유하고 힘세고 영리한 사람들을 택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어부들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고위 종교지도자나 전문가들 대신 어부들을 택하셨을까요?

※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반드시 읽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어리석게 여길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 고린도전서 1:18,21,23~24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십시오.

고상한 사람들은 자존심의 수준도 높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에 대해 지나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명성, 물질적인 재산, 가족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합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위대한 사역을 위해 훌륭한 사람 대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돌아섰던 부자 청년(마 19:16~26)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마 19:23~24)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자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 부자가 구원받기 어려운 이유는?

● **어리석은 부자(눅 12:16~21)**

부자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눅 12:19).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자에게 어리석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무엇인가?(눅 12:20)

● **인생의 초년기에 모든 권세와 부를 가졌던 모세(출 2:1~15)**

애굽의 왕자로 어린시절을 보낸 모세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민족을 위해서 자신이 무언가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능력이 모세를 넘어지게 했습니다.

행 7:22

※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 부르신 때는 언제였는가?(출 3장)

슬프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늘의 보화보다 이 땅의 보화를 더 가치 있게 여깁니다. 세상적인 성공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오해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의 결국은 불행으로 끝을 맺을 때가 많습니다. 복음, 곧 복된 소식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을 자신의 제자로 부르십니다.

막 1:15

요 3:16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자를 사용하시기 때문이다.

단순히 자신을 드러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의 반응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스스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의 건물은 인간적인 기초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되며 오직 하나님의 은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고전 3:10~11

막 1:17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께 나아와 주님이 닦아 두신 기초 위에 주님께서 건축물을 세우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은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어부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함께 일합니다. 그것은 팀 사역입니다. 안드레, 시몬, 요한, 야고보는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일했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각 사람은 자신의 달란트로 헌신해야 합니다.

고전 12:10

예수님은 시몬,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불러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이 어부들은 자신의 직업과 가족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기회입니까! 그들은 특별한 책임을 부여 받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마 28:18~20 _____

고전 13:8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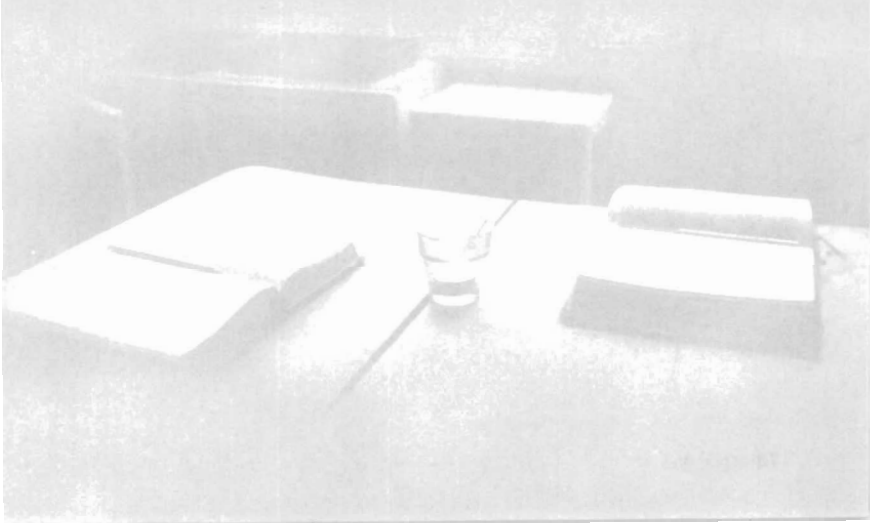
우리가 함께 협력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십시오. 결국은 사라져버릴 자신의 지식이나 세상적인 성공이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지 않게 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 믿음의 기도 |

1. 복음을 위해서 내 모습 그대로 드리게 하소서.
2.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3. 모든 구역원이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남성구역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남성구역예배’는 ‘구역예배 교재’ 중
‘제3과’를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남성 구역 예배를 위한 설교자료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

- ⁽¹⁾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²⁾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
⁽³⁾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⁴⁾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아와서 수종드니라

(마태복음 4:1~11)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마 3:17).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요 1:12~14). 예수님은 세례 받은 직후에 성령에게 이끌리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마 4:1). 마귀, 사탄은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를 유혹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시험에 빠뜨리는 것을 즐기고 있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마귀가 자신들을 시험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그리스도를 시험했다면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는 것은 더더욱 쉬운 일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려고 할 것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의 속임수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모두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준비합시다.

육신의 정욕으로 시험받으셨다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예수님은 매우 굶주리셨습니다. 마귀는 주님께서 주리셨을 때 다가와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마 4:3). 우리의 육신은 언제나 먹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은 긴 시간 동안 먹지 못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음식을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소원은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기 좋은 부분입니다. 마귀는 항상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시험합니다. 바울은 마귀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시험할까봐 염려했습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살전 3:5). 마귀는 눈에 보이는 음식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마 4:4).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는 그의 백성들에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사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신 8:2~3).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열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마 6:11). 마귀는 우리의 욕망을 이용해 시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꾀에 걸려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십시오.

안목의 정욕으로 시험받으셨다

마귀는 ‘육신의 정욕’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하자 ‘안목의 정욕’을 이용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말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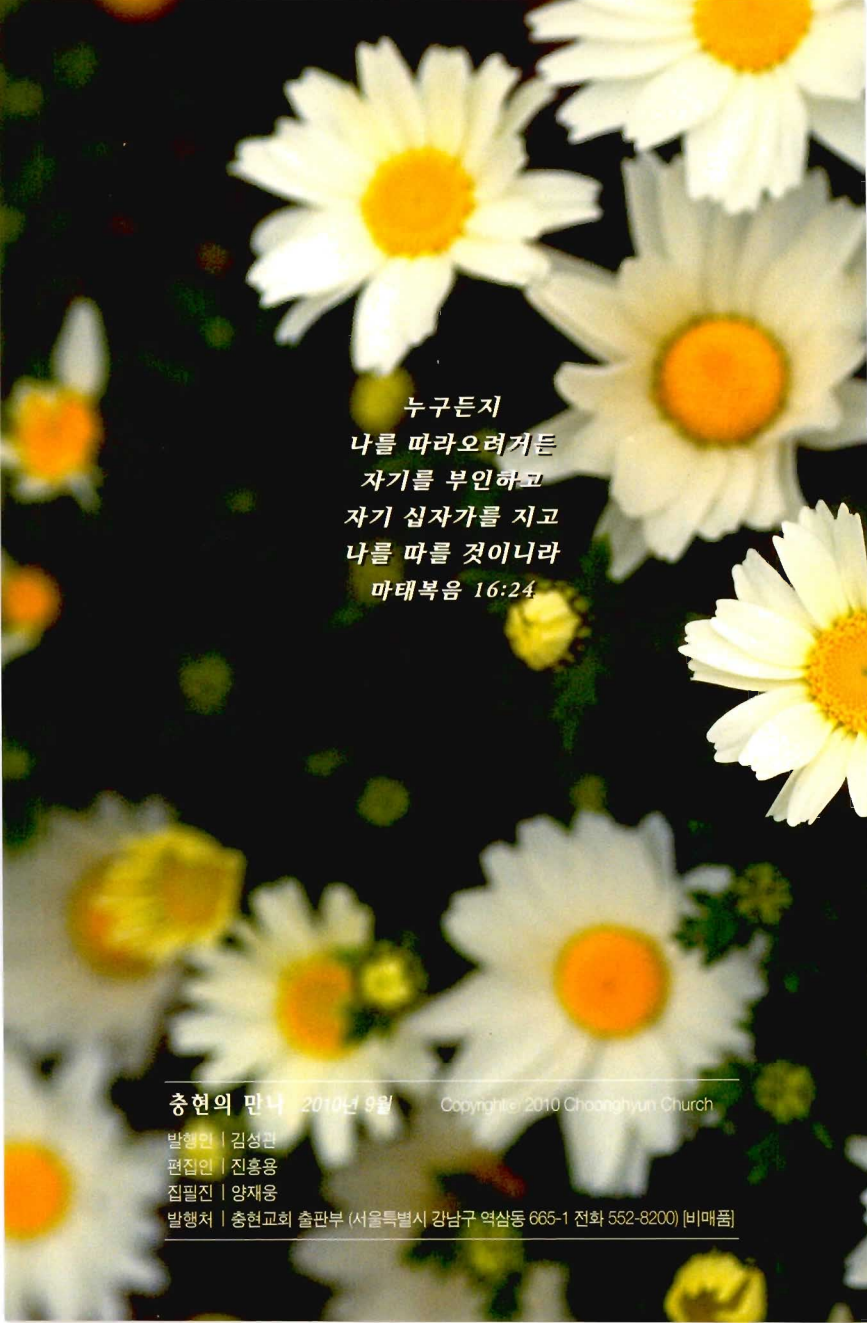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마 4:6). 만약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전혀 다치지 않았다면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은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했을지도 모릅니다. 단상 앞에 선 설교자처럼 우리가 거룩한 장소에 있는 그리스도인이고 회중들이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보기 원할 때, 사탄의 덫에 걸려들지 마십시오. 마귀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망을 이용하려고 할 것입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십시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성경(시 91:11~12)을 인용하면서 자신의 목적에 맞지 않은 부분(“네 모든 길에서”)은 제외시켰습니다.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신명기 6:16을 인용해 마귀에게 대응하실 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예수님을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의 눈이 계속 천국을 향하도록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마귀가 승리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으로 시험받으셨다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없게 되자 마귀는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이생의 자랑’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매우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마 4:9). 사탄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 마귀에게 절하는 것이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이처럼 마귀는 가장 쉬운 길을 제시하며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마 4:10). 주님은 신명기 6:13을

인용하셨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왕에게 지배당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를 물리치고 있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길을 가로막았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마 16:23).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굳게 붙잡을 때 마귀가 우리의 길에 놓은 어떤 유혹의 덫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2은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시 23:4). 오늘날로 말하면 마귀는 예수님을 100만 달러로 공격하기 시작했다가 그 다음엔 2조로 유혹하고, 마지막에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을 제시했습니다. 우리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마귀는 더 심각한 문제로 공격해 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삶과 능력의 원천인 것을 고백하십시오. 마귀의 시험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맞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자신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요일 2:15~17). 아멘. ■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충현의 만나 2010년 9월

Copyright © 2010 Choonghyun Church

발행인 | 김성관

편집인 | 진홍용

집필진 | 양재웅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비매품]
